

조계종 세계로 비상

용인 화운사에 25일 영어전문교육기관 국제불교학교 개원



국제불교학교 교사로 사용될 화운사 능인선원 건물. 개원을 앞두고 공사가 한창이다.

조계종이 한국불교 세계화를 위해 설립한 '조계종 국제불교학교'가 3월 25일 오후 2시 용인 화운사에서 개원한다.

용인 화운사(주지 도현)는 개원을 10여 일을 앞둔 16일 국제불교학교에서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에 앞서 조계종은 국제불교학교 학장에 스위스 법제사 주지 무진 스님을, 학감에 비로자나국제선원장 자우 스님을 임명한다.

국제불교학교는 비구니스님 대상의 2년제 전문 영어 교육기관이다. 국제불교학교를 수료한 스님은

습득한 영어활용 능력을 활용해 해외에서의 포교를 비롯해 국내에서 외국인 대상 포교활동 및 국제행사 통역, 템플스테이 지도 등을 담당하게 된다. 또, 3급 승가고시 응시자격이 부여된다.

국제불교학교가 들어설 곳은 강원과 선원으로 활용되던 공간이다. 연면적 100평 규모로 1층에는 대강의실과 소강의실, 지대방, 다과실 등이 2층에는 12개의 방사 등이 있다.

학감 자우 스님은 "신인생 9명 중 6명 이상이 영어로 의사소통이 가

능한 수준이다. 10년 이상의 비구니스님들로 모두 국제포교의 원력과 신심이 남다르다"고 말했다.

국제불교학교는 "영어로 법회와 법문이 가능한 수준을 만들어 한국 불교를 세계에 알리는 전범사를 양성하겠다"는 목표를 갖고 설립됐다. 이를 위해 조계종은 국제불교학교 학인스님들의 교육비를, 화운사는 생활비를 전액 지원키로 했다.

국제불교학교에서 학인스님들은 새벽예불과 아침공양을 마치고 오전 영어 수업, 오후 불교교리와 선무도 활동, 저녁 영어일기 쓰기, BBC CNN 등 해외 뉴스 청취 등 종일 영어 능력 향상에 쏟는다. 온전한 학습을 위해 의사소통은 영어로만 한다. 우리말이 가능한 시간은 오직 '예불' 시간 뿐이다.

국제불교학교는 5학기로 운영된다. 한학기는 10주이다. 1주간 휴식기를 마치고 바로 다음 학기가 시작된다. 5학기제에는 6주간 미국 등 해외 현지 연수를 떠난다.

자우 스님은 "세계 어느 곳에서든 조화롭게 한국불교를 알릴 인재 양성을 목표로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조동섭 기자

"교육도량 거듭날 터"

용인 화운사 주지 도현 스님



"용인 화운사는 교육도량입니다. 강원이 사라지고 선원만 운영됐지만 국제불교학교를 통해 화운사의 교육도량으로서의 면모가 일신되길 기원합니다."

용인 화운사 주지 도현 스님(사진)은 16일 국제불교학교 개원 전 간담회에서 이렇게 말했다. 젊은 시절 화운사 강원에서 부처님 법을 깨우쳤던 주지 도현 스님에게는 지명 노스님이 열었던 강원예의 향수가 남아 있던 차, 교육원의 국제불교학교 개원 제의는 줄탁동시와 같은 기연(機緣)이었다.

도현 스님은 망설임 없이 국제불교학교 유치에 결심했다. 녀너지 않은 절실함이었지만

국제불교학교에서 공부할 후학을 위해 불심양면으로 지원을 아끼지 않았다. 국제불교학교 교사(校舍)로 사용될 능인선원의 리모델링 비용 4억원도 도현 스님의 원력이 있어 가능했다.

도현 스님은 1년 여 전부터 화운사 주지 소임을 살았다. 화운사 주지소임 전까지 스님은 22년을 강원도 흥천 산골에서 수행만 하던 산승이었다.

산에서만 살던 스님은 마을로 내려와서 많은 것을 배웠다. 화운사의 교육도량 전통과 용인 동백지구에 위치한 지리적 이점을 살려 서예교실, 요가법회 등을 열었다. 템플스테이 사찰로도 지정됐다. 특히 2010년 4월 시작한 어린이 영어법회 탐마스쿨은 인근 주민들의 호응이 크다.

도현 스님은 "교육에 남다른 뜻을 가졌던 지명 노스님의 가르침을 이어, 그 뜻을 살리려 했던 것 뿐"이라며 "국제불교학교의 화운사 개원은 시절연인이 닿았을 뿐으로 노스님들의 교육원력이 있어 가능했다"고 말했다.

조동섭 기자



김영국 칼럼
前 조계종 총무원장 정책특보

정신병 소리 듣는 종교

조용기 목사가 "일본 지진은 우주 상층부에 대한 하나님의 경고"라고 발언했다. 이에 대해 진중권 씨는 "정신병자들이 목사질을 하고 자빠졌다"고 비난했다.

종교인들은 이렇게 권력과 부를 가지면 잔인해지고 뻔뻔해지는 모양이다. 정의구현사제단의 김인국 신부도 가톨릭 교회가 부자가 된 뒤 현실을 외면했다고 말했다.

그런데 불교는 어떤가? 수덕사 방장 설정 스님은 최근 한 언론과 인터뷰에서 "살생과 투쟁으로 얼룩진 것이 종교의 역사다. 너무나 배타적이고 이기적으로 살고 있는 종교인들이 각성해야 한다. 자성과 해신 결사가 이러한 종교계에 큰 반향을 일으키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방장스님의 이런 당부에도 불구하고 조계종의 자성과 해신 결사는 그동안의 잔치, 정확히 이야기하면 종단 지도부만의 잔치로 이어질 뿐

큰 반향을 일으킬 조짐이 보이지 않는다. "권력과 외부에 향한 의존을 과감히 없애고, 자성을 바탕으로 한국불교가 국민과 사회로부터 신뢰받는 종단으로 거듭나야 한다"는

근래에 보기 드문 불교자주선언이 왜 중생들의 귀에 와 닿지 않을까? 방장스님 말씀대로 불교가 자성을

외치고 있지만 아무도 자성에 대해서는 이야기하지 않기 때문이

다. "1600년 전통을 못지않게 조계종이 유사정치집단이 되고 있다"고 각성을 촉구해도 정작 자성을 해야 할 종단의 지도부들은 꿈쩍도 하지 않는다.

'국교보조금행령', '권력과의 유착', '금권선거', '해의원정도박', '은처승문제', '계파야합', '나눠먹기' 등 최근 몇 년 사이에 언론에서 거론됐던 불교관련 뉴스에 관련된 이들은 종단에서 방귀개나 썩는 자리를 차지하고 있는 닭벼슬들 아닌가?

온갖 부정과 비리는 자신들이 저질러 놓고 이에 대해 한마디 반성도 없이 묵묵히 수행과 포교, 사회봉사에 자신을 돌볼 틈조차 없는 1만4000명의 스님들에게 "자성과 해신"을 하고 "5대 결사"를 하라고 외치니 이 또한 정신병자 소리를 들을 일이 아닌가?

처음 출가를 한 이가 배우는 야운 스님의 '차경문'에는 이런 말씀이 있다. 관익대자심익소, 도익고자의익비(盲益大者心益小, 道益高者意益卑). 그런데 부자가 된 종교인들은 뜻을 낮추기는 커녕 점점 더 쿨뽀만 높아가서 대중들과 신도들을 좌지우지하려고 하는 것이 오늘의 황당할 세태이다.

(본 칼럼은 본지의 편집방향과 다를 수 있습니다.)

"상호 존중해 화합"

조계종 선암사 신임 주지 정책특보단장 정념 스님



정념 스님

조계종과 태고종이 공동으로 순천 선암사 재산관리권 인수를 추진하고 있는 가운데 조계종 총무원장 자승 스님은 3월 14일 한

국불교역사 문화기념관에서 정책특보단장 정념 스님을 조계종 순천 선암사 주지로 임명했다. 노덕현 기자

"즉자적 대응보다 실천"

청정승가를위한대중결사 2기 의장 만초 스님



만초 스님

'청정승가를위한대중결사'는 3월 14일 제3차 정기총회를 열고 새 의장에 만초 스님(울산 해남사 주지)을 선출했다. 부의장은 심산 스

님(부산 흥법사 주지), 선오 스님(대전 만불선원 주지), 사무총장은 금강 스님(해남 미륵사 주지)이 선출됐다. 박기범 기자

조계종, 불교수목원 건립한다

환경위원회 회의서... 수덕사 관심 보여

조계종 환경위원회(위원장 장명)는 3월 16일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2층 분과회의실에서 회의를 열고 2011년 수목원 건립을 추진하기로 했다.

김재일 사찰생태연구소장 등 생태환경 전문가들의 잇따른 제안에 따른 것이다. (본지 2월 16일 823호 특별기고)

환경위원회는 이날 불교수목원 설립 준비 소위원회를 구성하고 위원장에 이병인 교수를, 위원으로 성효 스님과 윤여창 교수를 위촉했다.

준비위원회는 수목원 건립에 필요한 기초자료 수집을 위해 일반 수목원 탐방 및 건립 예상지 조사와 워크숍과 토론회 등을 통해 운영방안 등 각계 의견을 수렴할 예

정이다. 또 수목원 건립 전 생태교육 및 명상치유 프로그램 개발을 우선 추진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준비위원회는 3월 26일 국공립 수목원을 탐방한다. 이날 탐방에는 이날 탐방에는 총무원장 자승 스님을 비롯해 해당 지역 교구본사 주지 스님, 종회의원 스님 등이 대거 참석할 계획으로 알려졌다.

불교수목원의 최적지로는 수도권 당일 접근성을 갖춘 충남 지역이 거론되고 있다. 3월 8일 임명식에서 사찰생태연구소에 기금을 전달한 예산 수덕사 주지 지운 스님은 긍정적으로 검토 중이라고 밝힌 바 있다.

노덕현 기자

조계종 교수아사리 명단

△한문불전: 인해(前 동국대 외래교수)·원법(성균관대 박사) 스님 △초기불교: 각목(실상사 화엄학림 교수)·일중(석남사 비구니선원) 스님 △대승불교: 현석(해인사승가대 교수)·법상(前 동국대 외래교수)·태경(홍익대 대학원 외래교수) 스님 △산불교: 월호(쌍계사 승가대 교수)·신공(동국대 외래교수)·금강(미향사 주지)·정운(동국대 외래교수)·영석(동국대 외래교수) 스님 △계율·불교윤리: 지관(前 불교환경연대 집행위원장)·적멸(前 동국대 외래교수)·자현(동국대 외래교수)·벽공(前 봉녕사승가대 교수) 스님 △응용불교: 정각(동국대 겸임교수)·명법(서울대 외래교수)·오인(동국대 겸임교수) 스님.

조동섭 기자

박구원 만평



봉행 용화계단 보살계 수계 대법회

귀의 삼보하옵고!

본종은 부처님의 혜명을 받들어 삼사를 모시고 아래와 같이 보살계 수계 대법회를 봉행함을 제방에 고합니다.

삼사 (三師)

전계대화상 : 종 정 자 봉
교수아사리 : 총무원장 해 월
갈마아사리 : 종회의장 천 응

- 행사일자 : 불기 2555년 4월 10일(일) 11시 (음 3.8)
- 장 소 : 총본산 쌍미루사 용화전 및 경내 (불교TV 방영, 2부행사로 산사음악회가 이어 집니다)
- 문 의 : 총무원 ☎ 031) 677-9950~1 / 국장 010-2888-8245

전종도님들은 해당 사암별로 문의 및 접수 바랍니다.

(사) 대한불교 법상종 총무원

임원공고 및 입종안내

종 정 : 자 봉

총무원장 : 해 월

총무원

총무부장 : 도 일
사정위원장 : 인 산
포교위원장 : 각 정
교육위원장 : 일 공
참선위원장 : 소 운
홍보위원장 : 해 암
연구위원장 : 보 월
역경위원장 : 관 도
참선부위원장 : 선 담

총무부장 : 대 광
교무부장 : 성 운
포교부장 : 선 명
교육부장 : 해 각
재무부장 : 선 해
홍보부장 : 법 성
연구부장 : 선 경
역경부장 : 법 화
사회부장 : 법 산
문화부장 : 법 연
복지부장 : 지 공
호법부장 : 선 우

지방교구 총무원

서울총무원장 : 지 선
부산총무원장 : 해 명
대구총무원장 : 강 명
인천총무원장 : 송 각
대전총무원장 : 송 암
울산총무원장 : 석 천
광주전남총무원장 : 성 운
경기북부총무원장 : 성 상
강원총무원장 : 불 통
경남총무원장 : 일 공
충남총무원장 : 경 천
충북총무원장 : 강 월

중앙총회

중앙총회의장 : 천 응
중앙총회부회장 : 경 천

입종안내 및 문의

미륵세존을 주불로 심선운동을 전개하여 국민도의를 양양하고 사회복지를 개척함으로써 지상천국 용화세계를 함께 펼쳐나갈 사찰 및 중도님(승려, 법사, 포교사)을 모집합니다.

- 총무원 : 경기도 안성시 삼죽면 기술리 33-1 전화 031)677-9950~1, 팩스 031)677-9953
- 법상종 홈페이지 : www.bsj.or.kr 총무원 이메일 : bsj9950@paran.com

(사) 대한불교 법상종 총무원장 심지 해월